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Seoul Community Support Center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317호

02-385-2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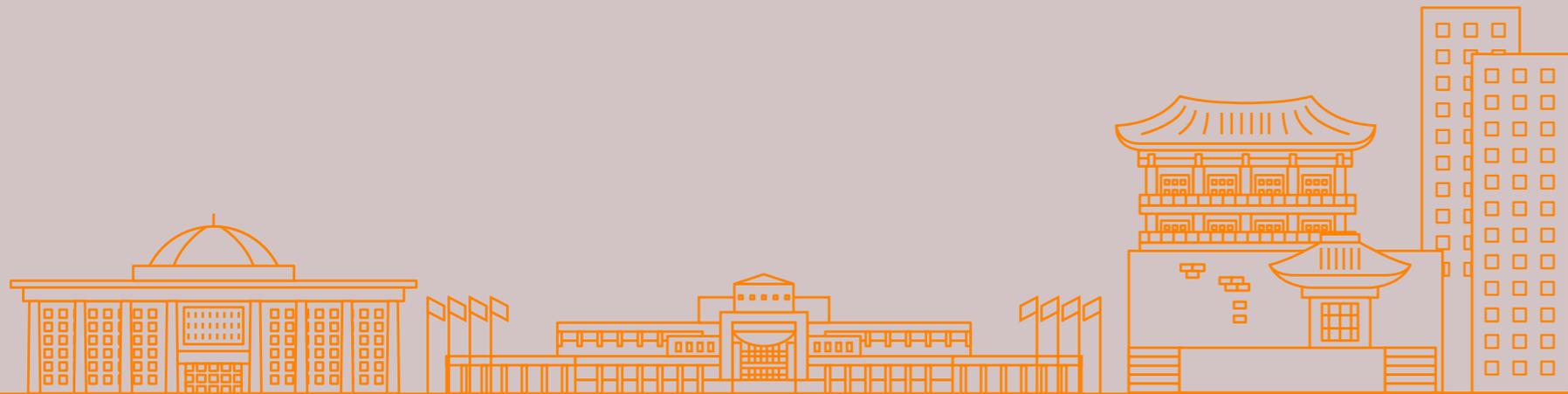
www.seoulmaeul.org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17개의 생각들

제2022-01-001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17개의 생각들

제2022-01-001호





발행일 2022년 5월 6일

기획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략팀

발행인 손우정

발행처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디자인 디자인바이숲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317호

대표전화 02-385-2642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17개의 생각들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17개의 생각들



CONTENT

PART 01

시민참여 확대와 제도혁신을 통한 마을민주주의 현실화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

- 생각 1** 서울시간은행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형성 지원 **06**
- 생각 2** 언제든 누구나 쉬운 ‘디지털 마을 통합 플랫폼’ 구축 **07**
- 생각 3** 시민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교육기관 활성화와 활동가육성 **09**

마을 자치 정책·제도 혁신으로

마을 민주주의 현실화

- 생각 4**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통한 주민자치회 강화 **11**
- 생각 5** 동주민센터 주민생활 서비스 개편과 동장 주민 추천제 **13**

PART 02

동네공간 활용으로 안전한 관계망 확산

공동체성 확대와 서로 보살핌 실현

- 생각 6**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살핌 공간 동네양호실 **17**
- 생각 7** 지역사회 돌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동네돌봄 **18**

저층 주거지역의 일상 생활지원과

탄소 제로 주택 관리

- 생각 8** 저층주거지 동네관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마을관리소 **20**
- 생각 9** 깨끗한 골목을 위한 클린 하우스 **21**

동네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활동의 거점화

- 생각 10**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역 가상발전소 **23**
- 생각 11** 동네 자원 순환 활동의 거점 제로부엌, 다회용기 순환 **24**

PART 03

격변의 시대에 대응하는 시민 일상의 전환

동네 문제 해결하며 마을에서 일하기

- 생각 12**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동네일자리 **27**
- 생각 13** 공익적 활동의 인정과 보상을 위한 참여소득과 지역화폐 **28**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생활 바꾸기

- 생각 14**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략 **30**
- 생각 15** 관계와 에너지의 전환, 서울형 전환마을 **31**
- 생각 16** 탄소 흡수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도시정원 **32**

재난의 일상화에 맞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 생각 17**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지키는 동 단위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34**

발간사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17개의 생각들”을 펴내며

2012년부터 본격화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삭막한 도시 환경을 호혜와 상부상조의 문화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닦은 1기 마을공동체 사업(2012년~201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을 주민의 실질적 자치로 연결하려는 2기 마을공동체 사업(2018~2022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은 새로운 3기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략적 방향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의 오류와 과제를 점검하여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작업은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17개의 생각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토론 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되거나 논의되었던 아이디어의 핵심을 모아 간략하게 엮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코로나 뉴노멀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방향(2020)』, 『서울시 3기 마을공동체 전략 수립 정책리포트 “지역적 실천, 지구적으로 연대하는 마을공동체”(2020)』, 『서울시 지역시민사회 정책제안서: 마을공동체·주민자치·지역시민사회(2021) 분야』, 『재난시대 회복력을 위한 서울 로컬뉴딜 모델 연구 보고서(2021)』를 주로 살폈습니다.

전략팀 원준혁 팀장을 비롯해 김나리, 홍준호 선생님이 자료를 검토해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방법에 대한 생각, 동네의 다양한 공유 공간을 활용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생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일상의 도전에 대응하고 삶의 양식을 전환하기 위한 생각들을 꺼내 담았습니다.

물론 이 ‘생각들’이 당장 실행해도 무방할 정도로 검증된 것이거나 각 분야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더 발전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생각들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공론장의 화두로 활용된다면, 그래서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로 쓰일 수 있다면, 이 발간물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서로의 고립을 넘어 상호부조의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상상력과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글들이 이를 시작하기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손우정 드림.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권 단위 동네의 재발견, 로컬 트렌드

- 굳이 도심에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독립 서점, 동네빵집과 카페 동네 상권)을 누리는 로컬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음.
- 재난지원금 소비, 근거리 온라인 중고거래(당근마켓)의 확산으로 동네 소비가 늘고 있으며, 주거지 근처 공원 산책 등 동네에서 활동이 주목

· 일, 삶, 놀이, 소비를 한동네에서 해결하는 15분 동네 생활권 도시의 등장

- 서울시민 1,0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에서 '걸어서 10분' 생활권 단위에 대해서 77.1%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¹⁾

·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지 공동체 활동, 지역 문제 해결, 공익적 활동이 가능한 참여 경로 필요

- 공모사업을 뛰어 넘는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 전략과 다양하고 안정적인 시민참여 경로 필요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기존에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층, 젊은 부모, 직장인, 학생 등의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주민 홍보 비용의 절감, 지도정보 아카이빙의 축적, 마을 비전 설정 등에서 큰 역할²⁾

· 동네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를 포함한 사람 자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³⁾

목적

- 공동체의 공익적 활동, 지역문제 해결 활동 촉진과 다양한 시민참여 확산, 참여효능감 제고
- 디지털 마을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확대와 통합정보제공, 아카이브

기대 효과

-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의 참여 확대
- 동네와 관련된 양질의 이론·실습 교육, 실천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제고, 활동가 육성

1)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308호.
"코로나19가 바꾼 시민생활" -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3) 코로나19이후, 행정이 가야할 길을 묻다, 행안부 제1차 열린소통포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

생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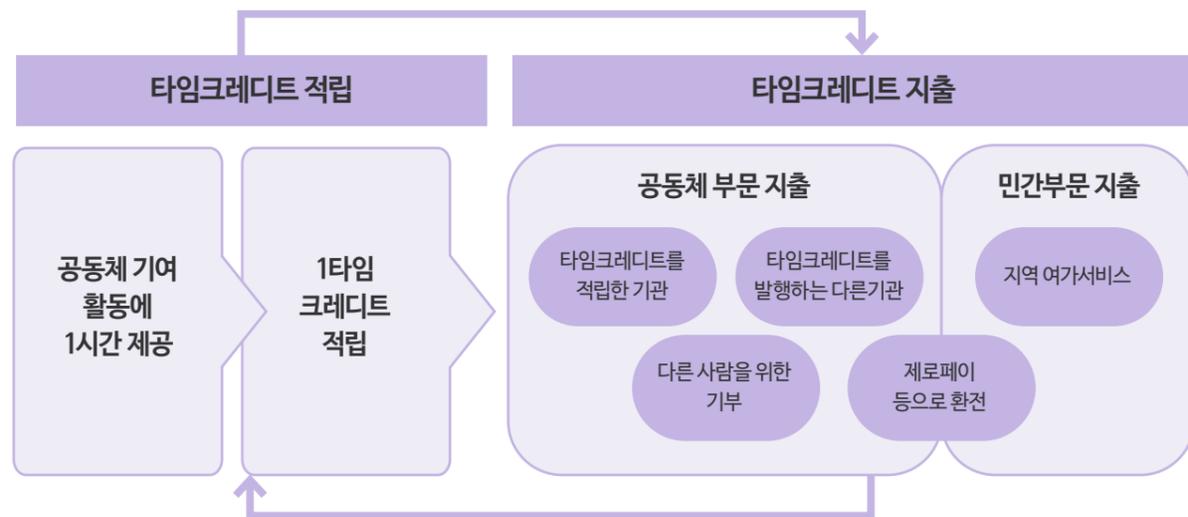
서울시간은행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 지원

서울시간은행 사업이란?

자생적 공동체 활성화 운영구조 확보 및 시민 주도의 기여 활동 촉적을 구현할

실제적 운영 체제 마련

- 시민의 공동체 활동 참여를 시간 단위의 크레딧으로 적립하여 상부상조와 호혜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



회원 범위: 개인 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

- 개인 회원: 서울에서 거주·학업·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보호자 동의를 득한 미성년자 포함)
- 기관 회원: 마을공동체센터,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 복지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법인 및 단체

거래 대상: 모든 무형의 호혜적·공익적 비재화성 활동

- 노인 병원 안심 동행, 안심마을 보안관, 자녀 돌봄 품앗이, 아이 돌봄, 은둔 청년 산책 동행 등 다양한 지역 문제 및 시책사업과 연계 가능
- ※ 영리 추구 활동, 포교 활동, 정치 활동, 단순 심부름 제외

구분	호혜적 활동	공익적 활동
활동영역	제공 활동 종류에 제한 없음	지역 문제 해결, 공동체성 유지영역
촉진방식	개인 간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매칭	기관·단체의 필요에 따라 요청
촉진주체	서울시, 광역센터, 자치구, 자치구 센터 및 개인 등	서울시, 광역센터, 자치구, 자치구 센터 및 센터와 협약(MOU)을 맺은 법인 및 단체

교환 방식: 개인 회원·기관회원 간 도움 제공·도움 요청으로 활동교환

- [사전 정보 제공] 개인·기관회원 기본정보 제공(지역, 선호 활동 분야, 특기 등)
- [추가 정보 제공] 매칭 시 세부장소(주소), 참여자 사진 등 세부정보 상호공유
- [종료 후 보상] 요청자 포인트 적립에 따른 시간화폐 인출 → 활동(제공)자 포인트 적립, 환전, 기부

생각 2

언제든 누구나 쉽게 찾는 ‘디지털 마을 통합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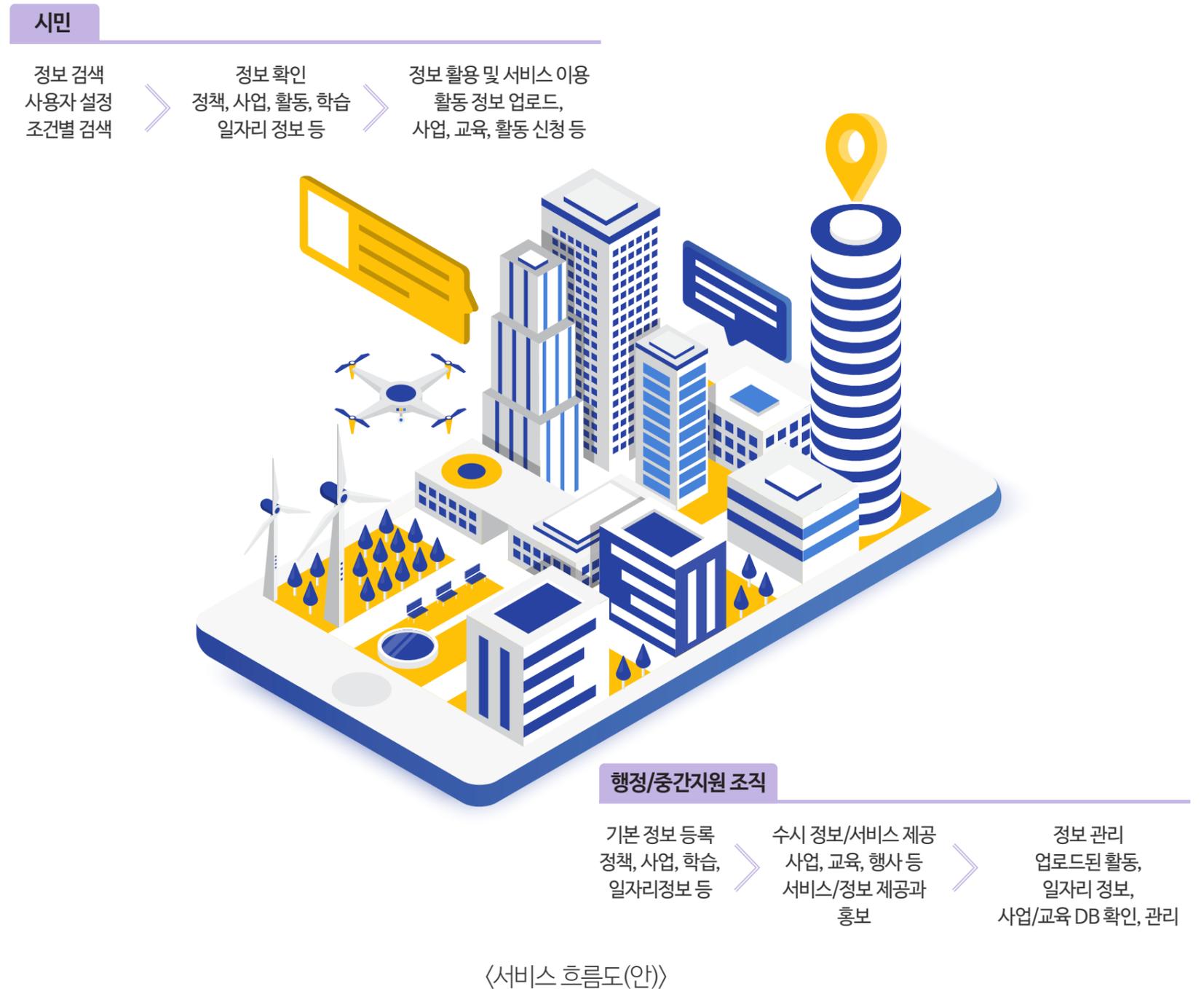
마을 정책 통합포털 구축

- 서울시 마을자치 정책 및 사업(개념, 관계법령, 주요사업, 추진현황, 성과, 통계 등), 서울시 마을자치 정책 지원 주체 (시, 구 단위 중간지원조직, 사업별 중간지원조직, 시/구 담당부서)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털 필요
-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절차 안내, 시/자치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 및 접수 기능을 탑재하고 DB시스템과 연계
- 마을 활동 참여 서비스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식적으로 취합·정리된 정보 제공을 통해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마을 자치 자원, 활동 현황 정보(지도, 사진, 글, 영상 등) 공유

구분	내용
학습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자치구/동별 교육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 교육 신청과 교육 이력 관리 서비스(MY PAGE) 제공 -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교육 이력 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기능 탑재
일자리 정보 지원	마을 자치 관련 다양한 일자리, 일거리 구인/구직 정보 공유 행정/중간지원 조직/지역 현장/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정보 제공 주체이자 활용 주체로 역할
온라인 공론장 서비스 제공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의제를 제안하고 속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 서비스 제공



- 동단위 중심으로 이용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적합 공간 정보 및 허위 정보 선별 및 제재 조치, 주기별 공간 정보 현행화 및 실제와 동일한 정보 업데이트
- 플랫폼 운영 활성화: 이용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이야기, 이벤트 등 소식 안내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공간에서의 마을 단위, 동단위 마을 활동 촉진
- 홍보 관리: 정기교육, 이벤트, 컨퍼런스 개최로 주민 참여 촉진 및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포털을 통한 홍보 활성화



생각 3

시민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교육기관 활성화와 활동가 육성

양질의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 제고

-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증대 및 지역자생력 강화
- 공무원, 마을활동가 등 관련 주체들이 연대, 협력할 수 있는 협치 역량 함양 강화프로그램 운영
-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가, 기후위기/자원 순환 일자리, 돌봄 일자리 등 마을 일자리, 일거리를 연계한 전문교육 과정 운영

민관 공동생산과 관리, 책임을 위한 기관 운영

- 교육기관 운영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市) 행정- 중간지원조직- 시민 간 연대로 공동생산-관리-책임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현
- 교육 실시 후, 교육 행정(교육생 관리, 수료, 인정)이 가능한 구조 마련



〈시민민주주의 학습기관 교육과정 구성〉

마을자치 정책·제도 혁신으로 마을 민주주의 현실화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주권 실현의 초석 마련을 위한 세금 마련과 주민자치 정책의 시민 체감도 향상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기반 마련 필요
- 팬데믹으로 황폐화된 주민 생활의 안녕과 활력을 불어넣는 로컬 중심 주민 생활 서비스 요구 증대
- 유사정책 간 행정-협치 칸막이, 복합적 생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목적

- 권한과 책임을 갖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주민자치회 책임 강화와 권한 확대
- 지역사회 공동생산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공적 역할 및 위상 제고
- 주민의 삶에 밀접한 주민 생활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으로 생산·제공
- 동주민센터 공공서비스 개편을 통한 행정 혁신

기대 효과

- 주민 대표성 확보로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시대문제 해결로 공적 역할 강화
-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표하는 혁신정책의 완성이자 유사정책 간 칸막이를 넘는 협치 기반 새로운 동단위 시민참여 정책의 활성화



생각 4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통한 주민자치회 강화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또는 기금조성으로 안정적 재정 지원 구조 마련

- 세입은 주민세로 하고 규모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주민세(개인 균등분) 517억을 1안, 주민세(개인 균등분+재산분) 762억을 2안으로 제안



구분	서울시 자치분권특별회계 도입안 재구성	
	1안	2안
세입	주민세(개인 균등분) 517억	주민세(개인 균등분+재산분) 762억
세출	[마을/자치/협치 사업-665억]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지역사회 혁신계획 -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커뮤니티공간 운영 지원 - 지역협치 활성화	[마을/자치/협치/사회적경제사업-731억]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지역사회 혁신계획 -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 지역 협치 활성화 - 마을기업 육성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와 운영

-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
- 서울시의 경우, 기존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인력(동자치 지원관)을 유급의 사무원으로 대체하고 간사는 유지
- 사무국은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하고 운영방식과 조직도, 인력구성, 근로 형태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과 주민자치회 비전/미션을 고려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함
-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재원은 ▲마을 민주주의법, 시-조례 등 법안과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근거 마련,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한 주민세 활용, ▲시범사업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영 등을 통해 확보

구분	독립형	통합형
운영방식	주민자치회 의결업무 협업조직 - 의결기능과 실무기능 분리	주민자치회 실무 조직 - 의결 기능과 실무기능 혼합
조직도		
구성	- 사무국장 (1인) - 사무국원 (2인) 간사 포함	- 주민자치 회장 - 주민자치 부회장 - 사무국장 (1인) - 사무국원 (2인) 간사 포함
근로형태	- 사무국장 상근 - 사무국원 상근, 비상근 ※ 인건비 예산 총액에서 인력 규모와 근로형태 조정 가능	
채용방식	- 공개채용	
고용주체	- 주민자치회	
업무내용	운영 지원	- 회의 운영: 분과, 임원, 전체 회의 지원 및 실무 - 조직운영 및 관리: 조직관리, 사무국 운영, 성과관리 -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주민자치학교 운영, 위원모집 및 선정, 발대식, 분과구성 지원 - 주민 총회: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총회개최 지원 - 주민 총회 결정사업 실행 지원: 시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 사업 지원, 분과 활동 지원
	사업 지원	- 자치 회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민원접수와 처리 - 기획 홍보: 각종 기획/특화사업 제안과 실행,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결과물 게시 - 네트워크: 주민자치/분과위원 네트워크, 동지역 사회 네트워크

생각 5

동주민센터 주민생활 서비스 개편과 동장 주민추천제

지역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동장 주민추천제 확대와 권한 이양

- 수요가 있는 행정동을 대상으로 5급, 6급 공무원을 동장 후보로 공모하여 동장 주민추천제 시행(공무원의 지원이 없는 경우, 민간으로 확대하여 모집)
- 해당 동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요구를 분석하여 업무계획을 공약으로 발표
- 동주민 자치회를 포함하여 '동장 추천인단'을 구성하여 투표를 통해 구청장에게 추천
- 인사위원회를 거쳐 동장으로 임명하고 임용 후 실적 가점과 승진시 우대, 추가인력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특별사업비를 편성하여 교부



〈동장 주민추천제 추진과정〉

- 법인허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고 주민 밀접 행정(주차, 청소, 공원 관리, 평생교육,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동주민센터에 단계적으로 사무를 이관
- 구 중심의 예산 및 회계구조를 동으로 이양하고 동별 예산편성권 부여(구 주민참여예산, 동으로 이관이 가능한 구 예산을 동으로 편성, 동생활청 사업비 교부 등)

추진절차	주요내용
동 이관사무 발굴	- 주민과 동 주민센터 대상 동이관사무 수요조사 - 구 사업부서별 동이관사무 발굴
동 이관 사전작업	- 이관된 사무 대비 필요인력 충원, 사무공간 확보 등 - 메뉴얼, 교육 등을 통한 사무 인계인수 추진 - 관련법령 재정비 필요 여부 검토 및 추진
동 이관 사무 확정	- 주민, 구-동 공무원, 전문가 등 검토(이관위원회 구성) - 동에서 업무진행 시 어려움 모니터링과 피드백, 개선
모니터링과 동 이관 완료	- 인수인계 현황 점검과 이관상 문제점 확인 - 동에서 업무집행 시 어려움 모니터링과 피드백, 개선 - 이관위원회에서 최종검토

〈동주민센터 권한 이양 프로세스〉

동주민센터 조직개편과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 동단위 주민주권실현을 지원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의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실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총원 또는 민간임기제 공무원의 선발, 배치
- 직원배치와 업무분장은 동별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구 단위에는 동주민센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총괄, 지원
- 동장 전문교육을 통하여 동장의 전문역량 확보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를 통해 운영기반 마련
-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능단체, 학부모회 등 지역사회 주민조직을 연계하고 자원봉사, 평생학습, 마을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민 주체와 주민조직을 연결
- 융복합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형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협동 경제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복지 등 민관 협치에 의한 주민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구분	주요 업무내용
주민생활 지원팀	-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등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등 - 통합민원 처리, 서무총괄
동전략팀	- 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 동단위 일자리 지원 - 동단위 특화사업 추진(동장 공약사업,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동복지팀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리와 지원 - 긴급복지, 여성·노인·장애인 복지 등 지원

〈동주민센터 조직개편(안)〉

동네 공간 활용으로 안전한 관계망 확산

02

PART

공동체성 확대와 서로 보살핌 실현

생각 6.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살핌 공간, 동네 양호실

생각 7. 지역사회 돌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동네 돌봄

저층 주거지역의 일상생활 지원과 탄소제로 주택 관리

생각 8. 저층 주거지 동네관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마을 관리소

생각 9. 깨끗한 골목을 위한 클린하우스

동네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활동의 거점화

생각 10.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역 가상발전소

생각 11. 동네 자원 순환 활동의 거점 제로 부엌, 다회용기 순환

공동체성 확대와 서로 보살핌 실현

배경 및 필요성

- **공동체의 안전한 관계망은 개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 코로나 사태로 '고립'은 특정 집단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상의 문제로 확인
 - 21년 서울시 중장년층의 고립감을 느꼈다는 비율은 53.9%⁴⁾, 전국적으로도 30세 이상 44세 이하 연령대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34.1%, 45세에서 59세 이하 30.7%
 - 더 깊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희망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고립감을 느끼는 주요 원인⁵⁾
- **주민의 관계망 형성으로 공동체 의식과 보살핌 활동 강화 필요**
 - 일정한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연대감, 소속감, 충족감, 친밀감을 포함하는 공동체 의식이 존재⁶⁾
 - 공동체 의식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보살피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주고받아야 고립 극복 가능

목적

- 공동체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연계 지점(공간) 적극 활용
-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춘 서로를 보살피는 활동의 증대
- 서로 보살핌 활동으로 행정 주도적 돌봄 제도 보완

기대 효과

- 주민의 지역 내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여 관계 안전망 확보
- 시민의 공동체성 확대와 서로 보살핌 실현으로 지역 돌봄망 가동



4)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보고서'. 2021
 5)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 연구팀. 사회적 인간으로서 한국인의 현 주소를 분석
 6) 마을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관계 분석. 정선기. 2015

생각 6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살핌 공간, 동네 양호실



건강 정보 제공

- 생활 영역 안에서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은 각자의 노력으로 정보를 습득하거나 개인적 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동네 양호실을 통해 혼재된 건강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여 주민 연계 건강 활동의 연결지점으로 활용
 - 예) · 여기가 아픈데 동네 의원 중 어디를 가면 되나요?
 - 병원에서 이런 처방을 받았는데 생활 개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 활동이 뭐가 있나요?
- 동네 양호실의 건강 정보 제공 운영 방안

구분	내용
건강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과 일상적인 건강 정보 나눔 · 지역 내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활동 공유 · 건강 코디네이터⁷⁾와 함께 건강 활동 계획 상담
운영 지역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주체: 지역 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계: 보건소, 보건지소 등
연계 동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 (예: 간호사, 건강 코디네이터 등)하여 일자리 생성 · 마을 내 유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의 단시간 일자리 생성

단기 간병 서비스로 사회적 보살핌 활동

- 제도 안에서의 건강, 돌봄 사업 등은 질환의 유무 (혹은 경제적 환경)에 따라 대상의 선별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기 시간 필요
- 본인 혹은 가족 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보살핌 공간 필요
 - 예) · 갑자기 몸이 아파졌는데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 아이가 아픈데 출근을 해야 해서 봐 줄 사람이 없어요.
 -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으로 가서 혼자 생활하기 불편해요
- 동네 양호실의 단기 간병 서비스 제공 운영 방안

구분	내용
단기 간병·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간: 일과시간(낮 시간) 운영→24시간 운영. 순차적으로 운영 시간 확대 · 질병 간호가 아닌 간병 정도 수준이 필요한 주민에게 단기 간병(3일 이내) 제공 · 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요양 공간
운영 지역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주체: 지역 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요양·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계: 보건소, 보건지소 등
연계 동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 간병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하는 일자리 생성 · 마을 내 유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등)의 일자리 생성

7) 방문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팀접근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로, 의료와 복지 등 지역의 여러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 (출처: 한국의료복지사회협연합회)



생각 7

지역사회 돌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동네 돌봄



돌봄 정보 제공

- 돌봄 포털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나열적 정보 제공
-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정보들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행정 서비스와 함께 시민단체, 복지관 등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역 내 돌봄 정보들의 통합 제공이 필요
- 예) · 돌봄에 관한 지원 제도가 많다고 하는데 찾아봐도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 동네에서 돌봄 관련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동네 돌봄의 정책 전달 방안

구분	내용
돌봄 정보 제공 (민간·공공복지 서비스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민간영역 + 공공영역의 통합 제공 · 지역 복지시설, 지역 단체의 돌봄 활동 등 민간 정보와 공공 정책 사업에 관한 돌봄 정보를 아우르는 포털
운영 지역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주체: 지역 복지관 등 · 연계: 동주민센터, 보건소, 돌봄 관련 지역 내 민간단체
연계 동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 찾기, 연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 (사회복지사, 퇴직 공무원 등)의 일자리 생성

동네 주민 간 교류로 예방적 차원의 돌봄 커뮤니티 활동

- 동네의 일상적 커뮤니티를 상호 돌봄 관계로 확장
- 다양한 돌봄 욕구를 지역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주민 활동 마련
- 돌봄 대상을 발굴하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주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돌봄의 대상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
- 주민은 서로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이웃 주민이 나의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
- 예) · 동네에서 주민들과의 교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 동네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쌓고 싶어요.

구분	내용
지역 주민의 일상적 돌봄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상호간 일상 커뮤니티 제공 · 다 계층간 교류 커뮤니티 활동 · 계층 간의 연대, 교류를 위한 교육(인권교육, 특수교육, 인문학 교육 등) · 사회적 관계를 통한 돌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제공
운영 지역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주체: 지역 내 마을 단체 · 연계: 지역 풀뿌리 단체 등과 민간 네트워크
연계 동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운영: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일자리 생성 ·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가 일자리 생성

저층 주거지역의 일상 생활지원과 탄소제로 주택 관리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도시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필요

- 서울시 425개 동 약 70%가 도시의 쇠퇴를 경험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의 약 40%가 낡은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
- 더딘 재개발의 속도로 인해서 슬럼화되고 있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쇠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주거, 경제, 환경 등 지역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민생활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 필요
- 저층 주거지의 일상생활과 공동체, 경제, 재생, 에너지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함(예 : 전구 교체, 간단한 집수리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지 못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주민들 많음)
-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통해 주민 생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해야 함

·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한 탄소제로 주택관리와 생활폐기물 감축 시도

- '18년 기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68.8% 차지하며 총 온실가스 배출량 47,073천톤CO2 중 건물부문이 32,368천톤CO2을 배출
- 특히 건물의 연면적이 지속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고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

목적

- 저층 주거지에 특화된 주민참여 모델로서의 마을관리소 설치
-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주거 환경 관리
- 생활 안전, 주거 생활 서비스 제공, 주민 생활 사각지대 최소화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시스템을 배치하여 근거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기대 효과

- 이웃과의 교류 확장과 주민밀착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 주거지에 대한 종합지원과 탄소제로 주택관리로 주택성능 개선에 기여
- 공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일자리 창출
- 시민참여형 폐기물 최소화 모델 마련과 생활폐기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



생각 8

저층주거지 동네관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마을 관리소

마을 관리소

- 생활 안전, 주거 관리 서비스 제공, 자원순환, 커뮤니티 공간 운영

구분	내용
생활 안전	- 야간순찰과 안심귀가 - 아동 등하교서비스 - 생활방역
주거 관리 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 - 공구 대여와 전구 교체 - 택배 보관과 배송 - 빨래 서비스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그린 리모델링
생활폐기물 관리	- 생활 쓰레기 수거, 관리 - 개량형/이동형 클린하우스 운영
커뮤니티 거점	- 주민 사랑방, 동네 카페, 지역공동체 활동 거점 운영 등

탄소제로 주택관리

- 노후 저층 주거지 주택 리모델링으로 지역에 발생한 자금이 지역에서 선순환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동 단위의 건강한 집수리 업체 네트워크 양성
- 동 단위 저층 주거지 집수리 종합 지원
- 마을 관리소 필요 인력은 6-7명 정도로 생활 안전, 주거관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

구분	내용
집수리교육	- 생활 집수리 기본, 전문교육 -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개선 교육
동네조사와 연구	- 저층 주거지 현황 데이터 - 빈집 현황 및 공간 매칭 - 생활SOC 공간 확보
동네 기술자 네트워크	- 집수리 동네 기술자네트워크 - 탄소제로 주택관리 교육 및 전문화



생각 9 깨끗한 골목을 위한 클린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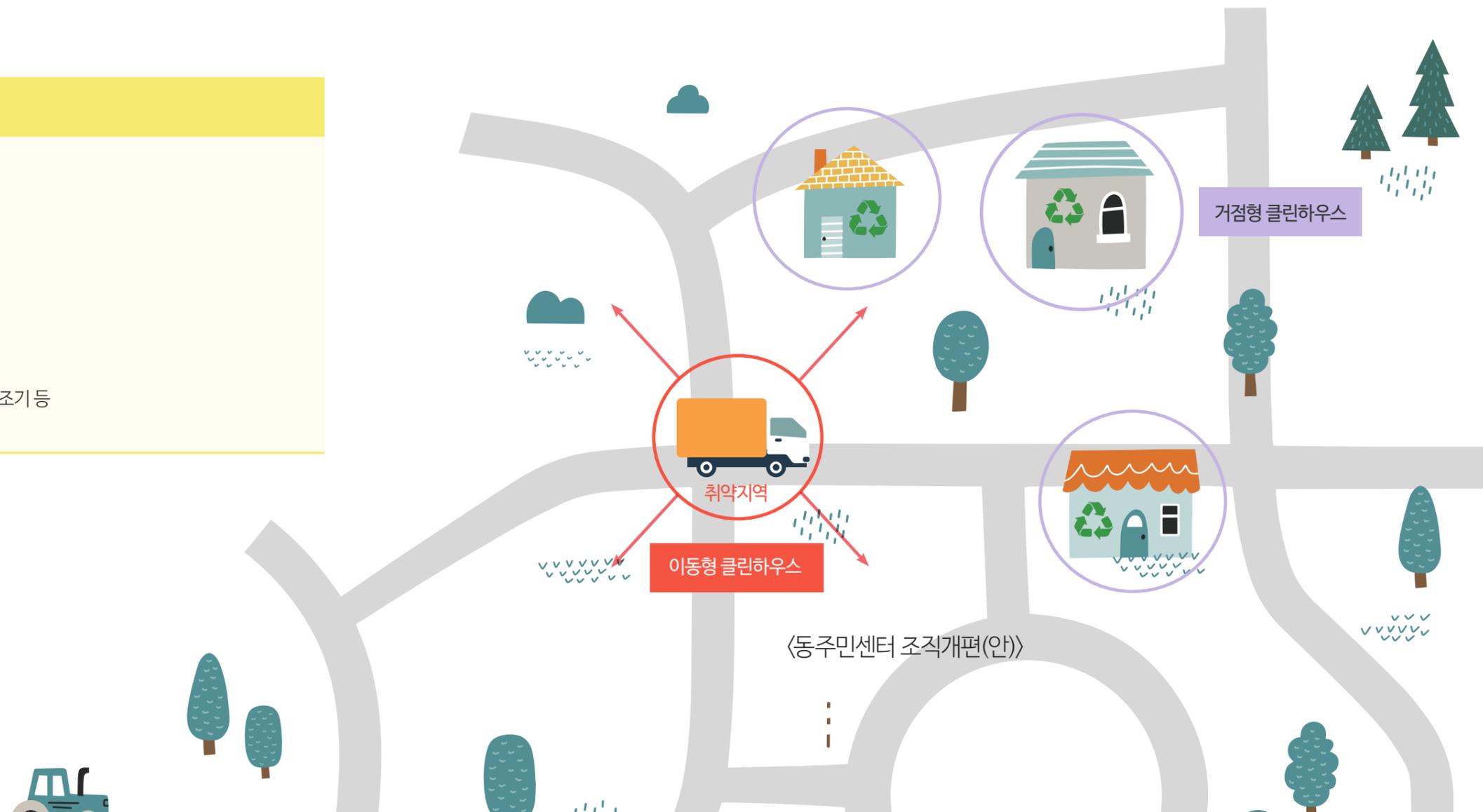
근린단위 클린하우스

- 클린하우스: 공원, 놀이터, 주차장 등 일정한 거점 수거지에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갖추어 자동 상차식 차량으로 수거, 처리하는 쓰레기 수거 방식

개량형 클린하우스 기능

- 분리배출 중심(근거리 편의성)
- 공간의 밀폐화, 기능의 다양화, 세련된 디자인, 청결 등 필요
- 무게와 종류에 맞도록 포인트 지급: 지역 화폐 제공
- 공공근로를 활용해 지역주민 소일거리 제공
- 종량제 봉투 판매(포인트 활용)
- 세척 및 손씻기 설비
- 전기충전소
- 기타 복합기능부여(포인트 활용)
ex) 인터넷, 복사출력, 자판기, 대형세탁기와 건조기, EM제조기 등

- 주민 복합편의시설로서 거점형 클린하우스를 설치
- 단독·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로 구성된 마을(동·洞)보다 작은 단위)이나 동 단위마다 1개소로 출발하여 점차 확대
- 동네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매입 후 조성하되, 동주민센터, 마을 활력소, 자치회관, 경로당 등의 거점 모델과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전기 트럭을 활용하는 이동형 모델을 적용
-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회 등을 기초로 주민참여 플랫폼 마련
- 서울시 차원에서 자원순환 관련 공감대 조성 및 시민문화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동·자치구-권역 차원의 정교한 자원순환 프로세스 추진



동네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활동의 거점화

배경 및 필요성

·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

- 한국 정부는 2009년에 2020년 탄소 감축 목표를 5억 4,300만톤을 설정하였으나 2020년 배출량은 목표 배출량보다 30% 이상 높음
- 온실 가스의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87.1%)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약 40%가량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부분에서 배출
-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과 탄소 저감 방안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폐기물의 증가로 자원순환 활성화가 핵심과제로 부상

-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배출되는 단위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의 7배, 독일의 1.4배(유승희,2020)
- 에너지 분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9%에 해당하는 632.4백만 톤으로 1990년 대비 163.1%, 전년 대비 2.7% 증가⁸⁾
- 생활폐기물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택배, 배달음식 등의 확대)와 폐기물 수요 감소(중국시장 포화, 원자재 가격하락 등)가 맞물려 주기적인 폐기물 대란 발생.
- 매립과 소각, 자원순환 등 중간단계 처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목적

- 그린 에너지 전략 강화, 민간의 전력 소비 판매 확대, 개인 간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와 규제 개선
- 제로웨이스트 샵과 마을 부역의 문제의식과 기능을 연계한 모델 마련

기대 효과

- 지역 내 에너지 줄이기, 에너지 생산, 관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에너지 자립 토대 마련
- 자원순환과 자연순환에 기여하며 자원순환 관련 시민의식 향상과 생활편의 공간 확보

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생각 10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역 가상발전소

동 단위에서 에너지 절약 및 생산,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동네별 에너지 가상발전소를 설치

- 가상발전소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
- 자치구의 '에너지센터'와 동 단위 '우리 동네 에너지 방앗간'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수행

자치구 에너지센터

- 자치구 에너지센터는 국가 그린 뉴딜 목표에 맞춰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자립율을 성과목표로 제시
- 주요 기능 : 자치구 단위의 전체 에너지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 플랫폼과 데이터 DB 관리,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장에 파견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 운영 형태 : 서울시 에너지 재단의 산하 기관으로 운영
- 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지역 전문성을 키우고 향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식 고려
- 정부-광역시-자치구 매칭으로 운영비용 마련

동 단위: 우리 동네 에너지 방앗간

- 우리 동네 에너지 방앗간은 현장에서 에너지관리소 역할을 수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와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을 지원
- 자치구에서 양성된 에너지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동하며 주택 에너지 성능 진단과 주민의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활동 전개
- 주요 활동 : 에너지 전문가 배치 및 상담,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연계 원스톱 컨설팅, 미니태양광 사업 설명, 동별 국민 참여자 모집과 홍보 활동 추진

구분	주체	역할
광역	에너지플랫폼	공동주택과 저층 주거지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시각화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실제 에너지 저감 및 생산을 확인
자치구	에너지센터	태양광 설치 유지관리 (지역단체연계) 에너지 전문가 양성 에너지 캠페인 홍보/에너지 마일리지
동	에너지 가상발전소	동별 에너지 가상발전소 운영 에너지 전문가 배치/에너지 상담 및 에너지 진단 에너지 성능개선 연계 저층주거지(주민 동의)/에너지마켓 운영
공동주택관리소	아파트관리소	아파트 전력사용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에너지 저감 LED교체 주민 동의서 받기
주민	에너지 운동 에너지 관리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공유	에너지 발굴단 활동 제로 웨이스트샵 재활용 재활용 활동

생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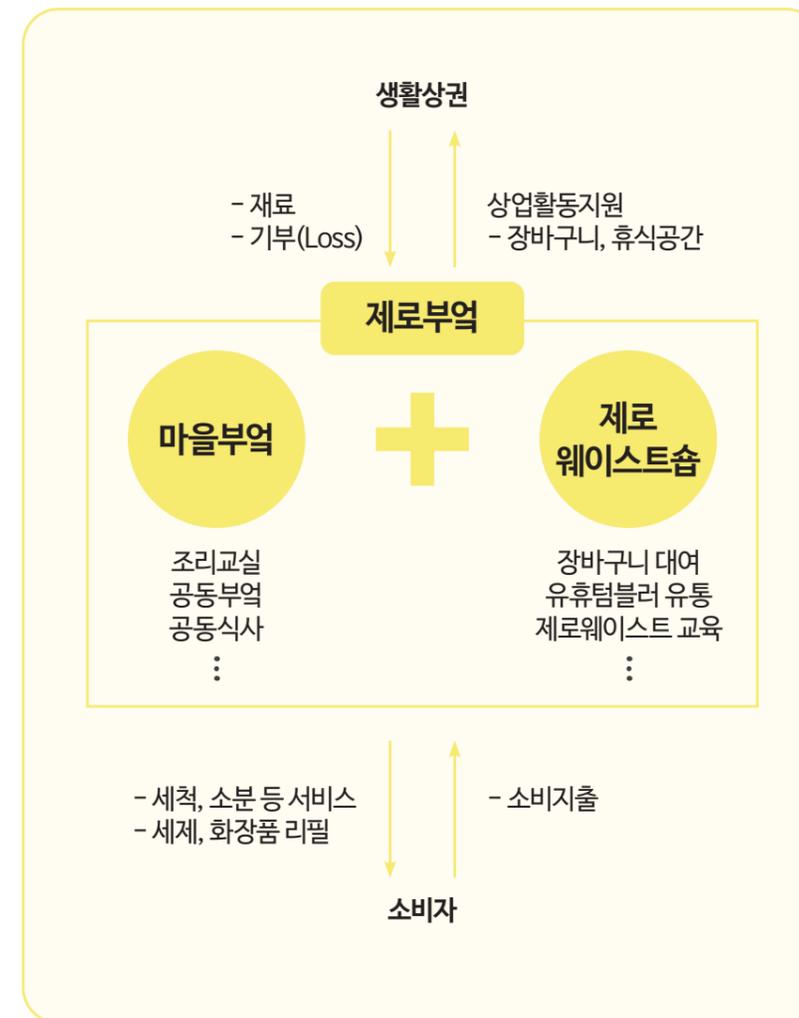
동네 자원 순환 활동의 거점 제로 부엌, 다회용기 순환

제로 웨이스트숍과 마을 부엌을 연계한 '제로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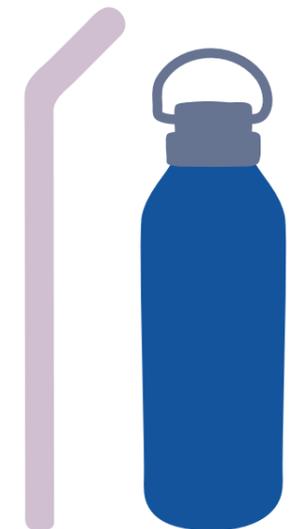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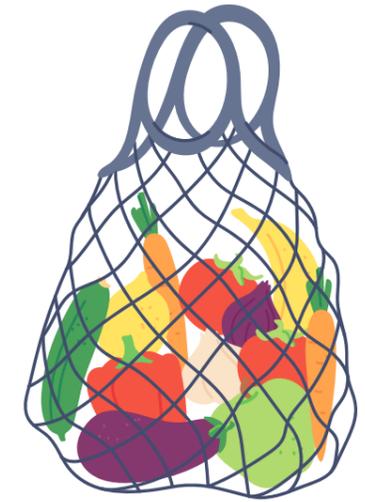
- 기존 마을부엌과 제로웨이스트숍의 융합 및 전면화를 추진하고, 동 단위내 전통시장(인정/비인정 시장 포함) + 골목상권 + 특화 거리 등 생활상권 위주의 공간에 배치
- 동 단위 이하 근린에서 작동하는 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
- 공동체 지원농업(CSA) 시민 그룹을 육성하여 농민 그룹과 직거래할 수 있는 거점 마련
-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생활상권 활성화 및 생태전환과 연계한 순환구조 마련

근린단위 다회용기 순환

- 배달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830만개 분량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쓰레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녹색연합).
- 배달 대행(라이더) 시스템으로 인하여 다회용기 사용이 어려워 근린 단위로 다회용기 순환모델 마련이 필요
- 행정의 지원 안에서 배달 업체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정한 비용을 세척업체에 제공
- 다회용기 세척업체가 식기 대여와 회수/세척 서비스를 제공
-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업(세척 및 수집 관련)을 유도하는 한편, 행정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국가-시장 연계사업
- 배달음식을 이용한 소비자가 직접 세척 및 회수 작업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모델로 확장 가능



〈제로 부엌〉



격변의 시대에 대응하는 시민 일상의 전환

03

PART

동네 문제 해결하며 마을에서 일하기

생각 12.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동네 일자리

생각 13. 공익적 활동의 인정과 보상을 위한 참여소득과 지역 화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생활 바꾸기

생각 14.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략

생각 15. 관계와 에너지의 전환, 서울형 전환 마을

생각 16. 탄소 흡수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도시 정원

재난의 일상화에 맞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생각 17.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지키는 동단위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동네문제 해결하며 마을에서 일하기

배경 및 필요성

- 2000년대 이후로 사회적경제 육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양적 확대는 되었으나 질적 성과는 미흡함
- 사회적경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고 단순히 공급자만 늘리는 방식은 문제임
- 기존의 글로벌, 국가 차원의 경제 시스템은 기후위기에 맞서 생태적 전환을 추진하기에 부적합함

목적

- 마을 일자리와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추진
- 참여소득 적용을 통한 지역 화폐 지급으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기대 효과

- 구체적 필요를 느끼는 주민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개발한 동네 일자리로 대안적인 소득원 제공
- 지역 문제 해결, 공익적 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으로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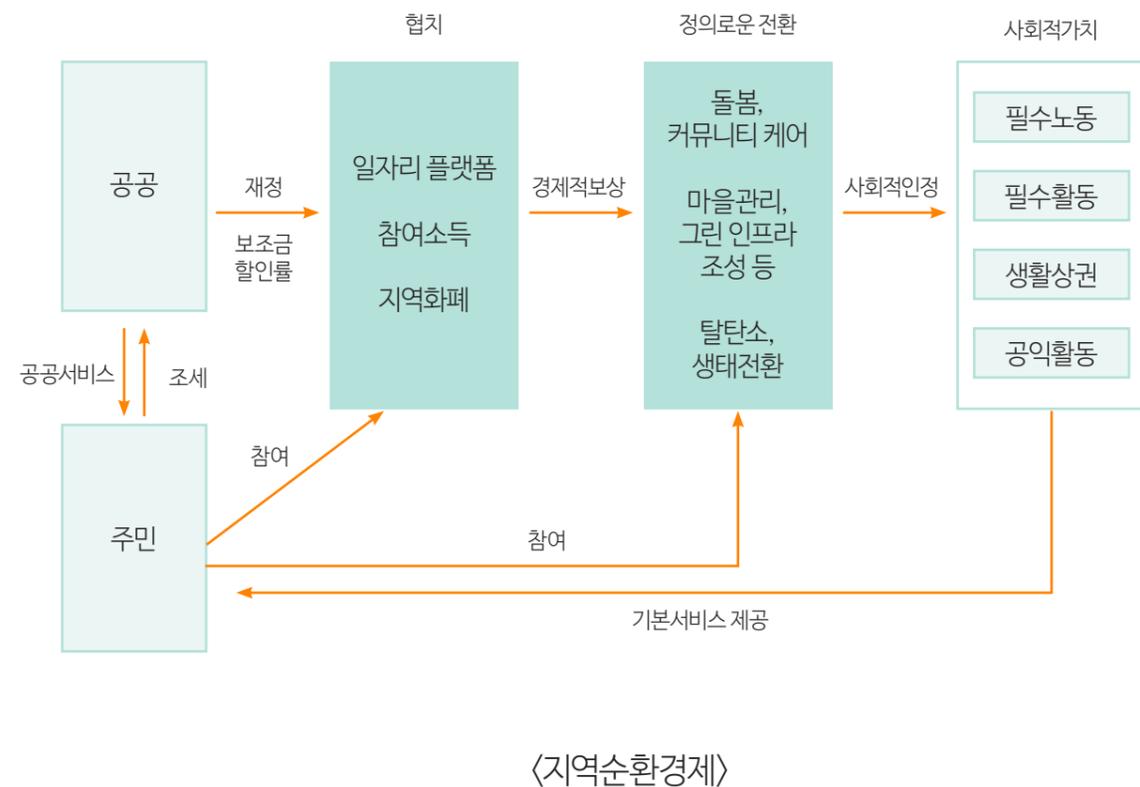


생각 12

골목 경제 활성화,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동네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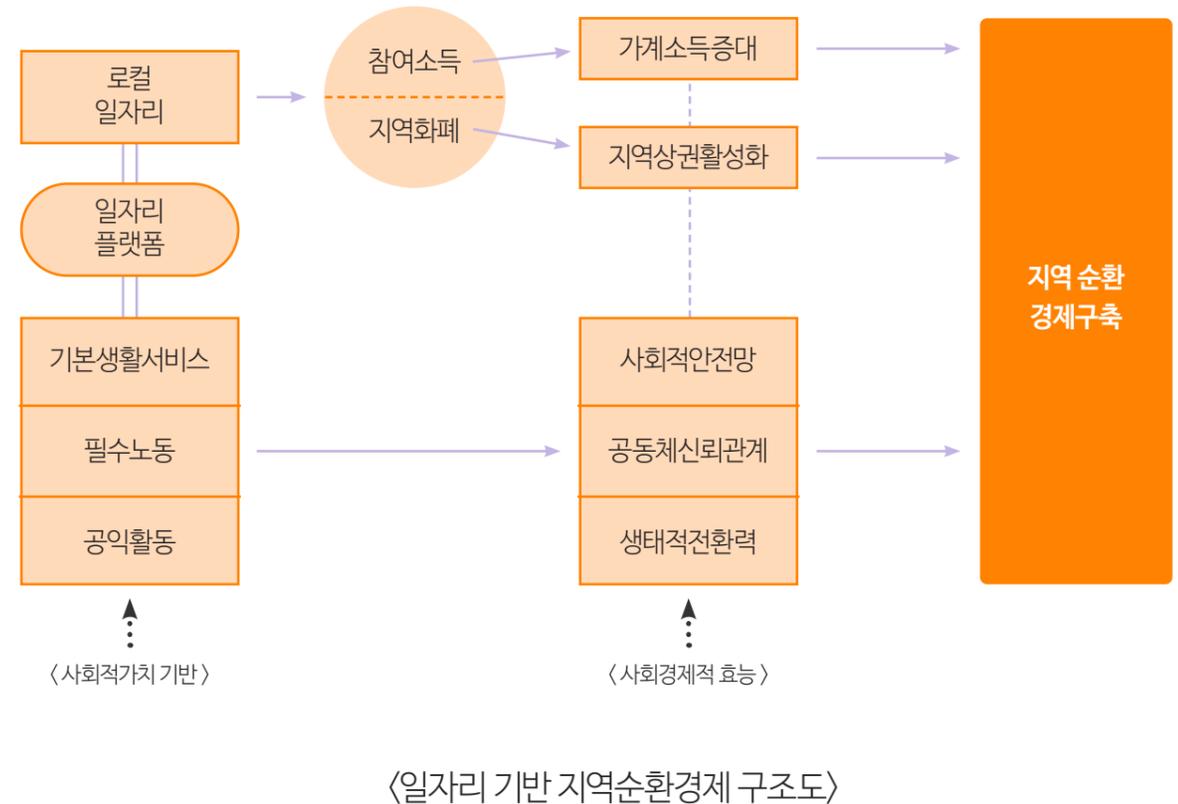
지역순환경제

-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재)투자가 순조롭게 순환하는 거시적 구조와 함께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 최소화 등 다양한 자원순환의 미시적 구조가 결합된 모델



동네 일자리 체계 구축

- 지역순환경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기본생활서비스 제공 일자리, 필수노동 일자리, 공익활동 일자리 등의 노동력이 필요
- 동네 일자리 종합 정보 창구, 마을 기반 일자리 정보 환류,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보 소통, 기존 일자리 플랫폼(서울시 일자리 포털, 서울잡스. 벼룩시장, 사람인 등)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현
- 기후위기 시민활동가, 도시농부, 마을 정원 관리자, 돌봄 매니저, 자원순환 지도사 등 마을일자리와 일거리를 다양하게 창출
- 동네 창업(사업자), 1인 기업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내 소득 창출
- 자치구별로 기후위기대응, 돌봄일자리 등에 대한 지역 주민 정책지원가 양성,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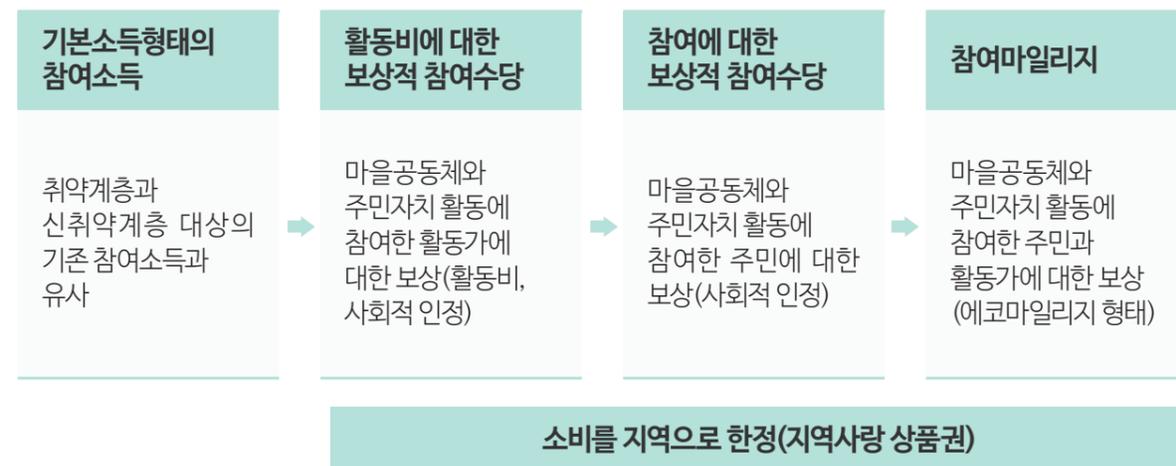


생각 13

공익적 활동의 인정과 보상을 위한 참여소득과 지역화폐

참여 소득제 도입

-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양한 공익활동을 참여소득으로 보상
- 참여소득은 시민들이 노동시간을 줄여서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기제
- 협동조합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활동량 증가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시민노동(자원봉사, 참여, 교육 훈련, 승인된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가치를 책정해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기존 노동체계가 포괄하지 못한 일자리와 소득효과 창출
- 단계별 참여소득 적용 전략



지역 화폐 정책 확대

- 지역 화폐는 공동체 기반의 화폐이며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
- 지역 화폐는 투자-생산-유통-소비-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의 핵심 매개
- 지역 화폐는 화폐를 매개로 한 일종의 관계망 기능을 담당
-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매개로 거래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시스템을 구축
- 향후 중장기적으로 지역 금융기관 및 시스템 구축
- 한국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취약성이 자체 금융 제도가 없다는 것이므로 지역 화폐가 향후 대안적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정 설계
- 지역 화폐를 매개로 한 할인율과 페이백 등을 지역 기금으로 축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생활 바꾸기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201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국가 순위는 전 세계 11위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에 해당
- 온실 가스의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87.1%)에서 발생
 - 온실가스의 약 40%가량이 화석연료 기반한 발전 부분에서 배출
 -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
- 서울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 달성을 목표
 - 전력 자립률은 2030년 23%, 2040년 35%를 목표
 - 석유발전을 통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2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관계 맺기와 소비, 생산 방식의 전환을 통해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마을 모델이 필요
- 인위적인 도시의 정원은 정원을 누리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의 교통 증가로 탄소 배출이 가중
- 도시 정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러 가기 위한 이동을 줄이는 방식 필요

목적

- 개개인의 삶의 생태적 전환을 통한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
-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보급
-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의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
-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집 앞 골목에서 꽃과 나무로 힐링할 수 있는 동네로 도시 전환
- 동네별로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휴식 공간 조성

기대 효과

- 격변의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전환 마을로 미래적 생태지향 지역경제 창출
- 재생에너지 적용으로 연 12,01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
- 도시 정원은 도심·생활권 공원 녹지를 확충



생각 14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략

탄소제로 재생에너지 (태양의 길 / 태양의 지붕 / 바람의 도시)

- 태양의 길 :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에 태양광 패널(방음벽형/터널형) 설치
- 태양의 지붕 : 서울시 옥상 면적 166km²에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바람의 도시 : 한강 다리의 하부와 상부에 풍력발전기 설치 (24시간 풍력발전)
빌딩풍(도심지 건물의 사이를 연결하여)을 활용한 풍력발전 추진
도심 가로변에 소형풍력 발전기(윈드트리) 설치
건물의 옥상과 하부를 활용한 소형풍력 발전기 설치



탄소 배출 저감 방법

- 시간대별 전력 분산 배치 : 가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은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활용하고 외부에서 발전한 전력은 에너지 저장장치에 충전하여 다음 저녁과 밤 시간에 사용
- 에너지 다소비 건물 재생에너지 100%(re100) 적용 :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물 수의 0.1% 수준이지만,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로 자발적 감축 유도
- 주거지 탄소 배출 저감 전략 : 주거지의 탄소 배출의 저감방안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패시브방식인 그린 리모델링으로 50% 저감하고, 나머지 50%는 액티브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저감하는 방식으로 주거지 탄소 배출을 저감

패시브	액티브	
건물에너지성능 개선(50%)	건물 태양광(30%)	외부 자원 활용 태양광설치(20%)
- 그린 리모델링(50%)	미니태양광 3개 228KWH 감축	- 간선도로 전체 5,147,500개 - 가용 옥상면적(전체옥상면적의 7%) 1,053,300개 - 학교 260,000개 - 한강변 자전거도로, 경사지, 공용주차장 등1,000,000개

〈미니태양광을 활용한 탄소 저감 방안〉

생각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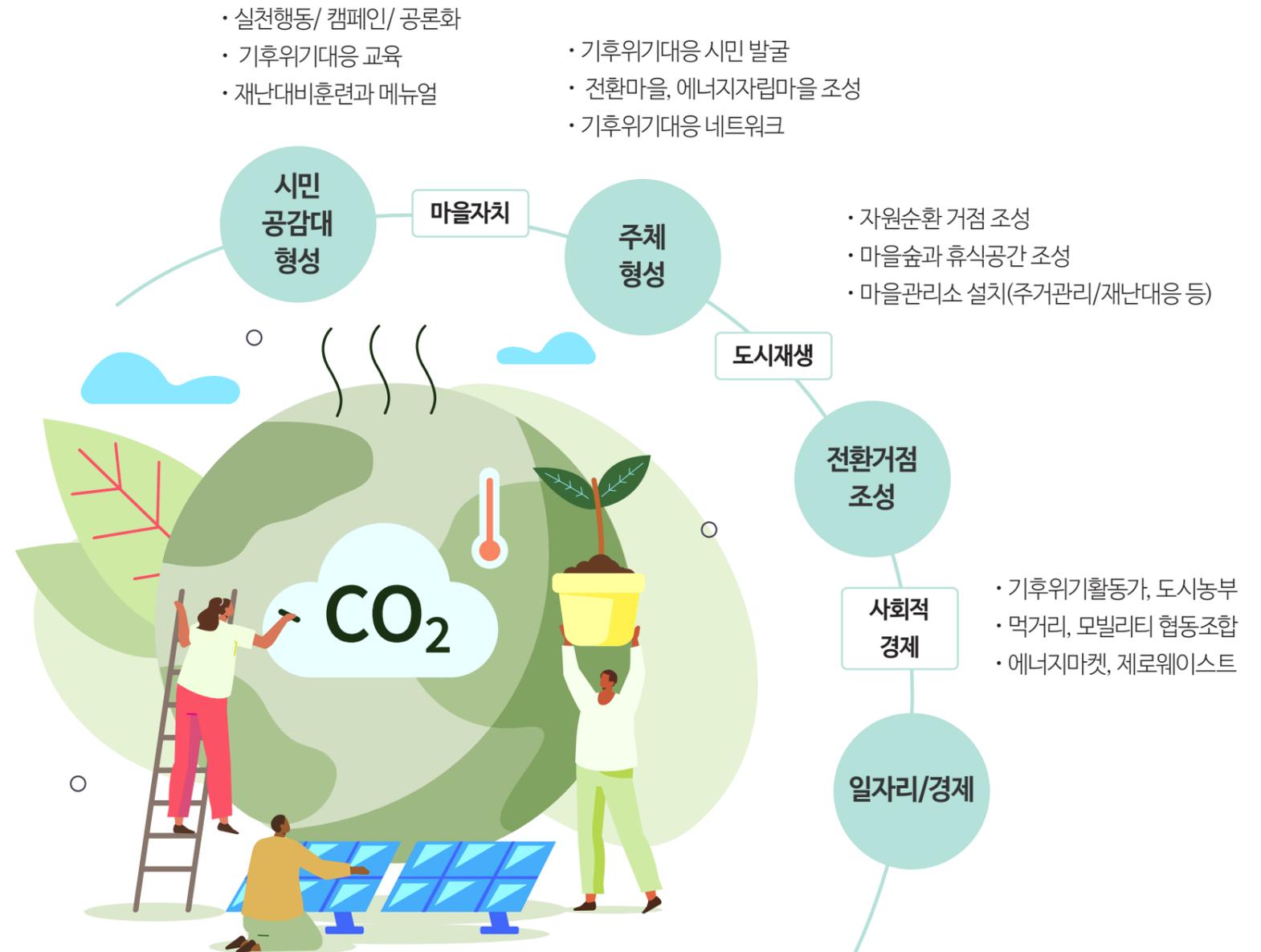
관계와 에너지의 전환, 서울형 전환 마을

전환 마을 (기후위기 대응 공동체) 조성 지원

- 마을 모임, 주민총회 등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형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
- 에너지 절감과 생산-탄소 배출을 줄이는 먹거리-자원순환과 재활용 효율화, 녹지와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을 융합적, 지역형으로 실천하는 서울형 전환 마을 형성
- 전환 마을과 공동체 등에 대해 지역순환경제로의 확장 도모, 공원과 녹지 관리, 자원순환, 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 채식 식당 등 지역 경제 조직화를 지원

동네 중심 기후위기 활동 기반 조성

- 전환 마을 네트워크 구성, 洞-區-市로 연결되는 기후위기 거버넌스 형성
- 기후위기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반하는 공동체 숲 등 공유지 조성, 생물 서식지 보전 노력
- 서울시 출연 전환 마을 기금 형성, 동 단위 주도의 중장기 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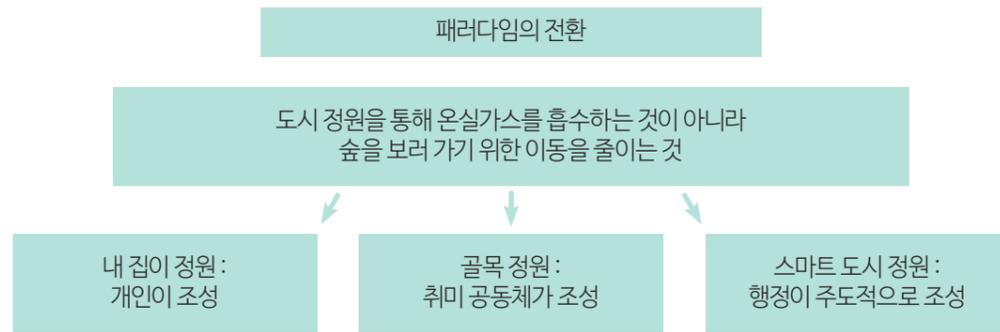


〈기후위기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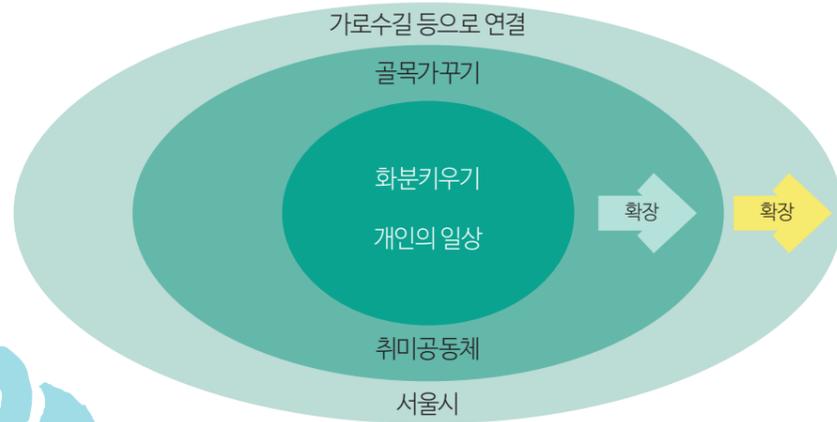
생각 16

탄소 흡수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도시 정원

도시 정원



〈도시 정원의 주요전략: 패러다임의 전환〉



〈도시 정원의 단계적 확장 경로〉

도시 정원 사업 예시

구분	주체	내용	
내 집이 정원	시민	화분 가꾸기	개인적 취미생활로 안착
		정원(화분) 사진 콘테스트	취미 생활의 재미를 배가시키고, 서로 화분 키우는 노하우를 교환하여 화분 문화를 빠르게 확산
골목 정원	정원가꾸기 취미공동체	담벼락 및 한 뼘 자투리 정원 골목 지원	'내 집 앞 화분 내놓기'가 활성화된 골목을 중심으로 골목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골목 정원을 제안하는 전문 컨설팅 제공
		옥상 정원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내 집 앞 화분 내놓기 지원과 담벼락 정원 골목 참여 주민들이 옥상정원 조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공
스마트 도시 정원 지원사업	서울시	스마트팜을 통한 도시농업 창업 전면화	공공 공간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스마트 팜을 확대하기 위해 '차 없는 골목'을 추진하는 지역은 지하주차장을 스마트 팜으로 조성하는 비용 지원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도심에 바이오어벤 설치	온실가스 배출이 심하지만 숲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도로, 공항, 버스 정류장 등에 인공나무인 바이오어벤을 설치하여 공기정화

〈도시 정원 세부 사업〉

재난의 일상화에 맞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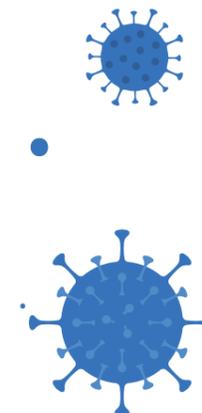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습격에 따른 일상의 급격한 변화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가속화, 겨울한파, 산불, 지진 상황 등 자연재해의 위협
- 갑작스런 재난(전쟁, 원전사고, 각종 건물 붕괴 사고)의 대비 필요성
- 중앙 차원의 재난 안전 연구와 시스템은 제안되고 있으나 구체적 현장인 동네 단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미흡

목적

- 격변적·일상적 재난에 대한 동단위 민관 대응 시스템 재편, 강화
- 재난시 발생하는 관계 단절, 정서적 고립에 대한
호혜적 마을 안전망 구축
-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참여를 통한 동네 단위의
안전한 공동체 실현

기대 효과

- 동단위 재난 시스템 구축으로 동네 주민에게 위험
상황에 대한 일상적 대처를 시스템으로 보장



생각 17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지키는 동(洞)단위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동 단위 재난대응 주민 거버넌스 구축

- 마을 공동체 및 주민 자치회, 자율 방재단, 지역 봉사단체 등 동 단위 주민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 재난 특성별 동 단위 안전 자원 (대피소, 생필품 확보 방안, 진료소 등) 확보
- 취약 자원 조사 및 기록 작업 연차별 수행



동 단위 재난 안전과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 동단위 재난 안전과 지역복원을 위한 민관 합동 계획 수립
- 국가적 공공 재난대응에 대한 동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구축



재난·안전에 대한 일상적 정보 제공과 교육 훈련

- 주민 네트워크와 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관(보건소, 소방서 등) 등의 협력으로 대시민 재난 안전 정보 제공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을 연계한 재난대응 훈련 제공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지역자원 연계, 공동체적 협력 방안 마련



동네 단위 재난 거점으로서 마을 공간 재창조

- 자치회관, 마을활력소 등 마을 자치 주요 공간들을 재난 거점으로 조성
- 재난 발생시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고립감을 줄이고 지역사회 연대성 유지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자원 교류의 허브 역할 수행